

흉부외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設問조사 연구

우 건 화* · 오 상 준* · 김 창 호*

=Abstract=

A Research on the Basis of Questionnaires about Common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

Keun Hwa Woo, M.D.*, Sang Joon Oh, M.D.*, Chang Ho Kim, M.D.*

In general, common people have more understanding of and confidence in the university hospital than the private and the smaller semi-general hospital. But they know little about an appropriate field that is a part of the university hospital and takes care of them.

Taking these situations into consideration, we, writers made analyses of statistics by putting into the form of diagrams.

Statistics are about these questions.

1. How much Korean adults know about my major, a special treatment field-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 (T.C.S).
2. How much Korean adults know about the detailed parts of the T.C.S.
3. How much Korean adults know about how medical treatment and operations are performed, and which diseases are concerned with the T.C.S.

At this point, to compare the medical team's practical province in the T.C.S. surgery with the contents of common people's knowledge of the T.C.S., we made a balanced-check of many situations according to questions about the T.C.S.

We present common people's actual answers.

(Korean J Thorac Cardiovasc Surg 1996; 29: 129-35)

Key words : Actuarial Analysis

서 론

흔히 일반인들은 종합병원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도가 개인병원이나 규모가 좀 작은 준종합병원에 비해 높은 편이나 그 자체 내에 포함되어 진료되어 지고 있는 소속분야에 대한 상식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본인이 속해있는 “흉부외

과”라는 특수 진료과목에 대한 우리 나라 성인의 인식도와 진료과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와 진료 및 수술, 어떠한 질병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도표로 정리하여 분석해 보았다.

흉부외과에 대한 물음에 따른 상황을 균형 점검하여 현 시점에서 “흉부외과”라는 의료진들의 현실영역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비례하여 점검하고자 이들의 현실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서울 백병원 흉부외과

* Department of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 Inje University Seoul Paik Hospital

논문접수일: 95년 7월 19일 심사통과일: 95년 10월 16일

통신저자: 우건화, (100-032) 서울시 중구 저동2가 85, Tel. (02) 270-0039, Fax. (02) 278-0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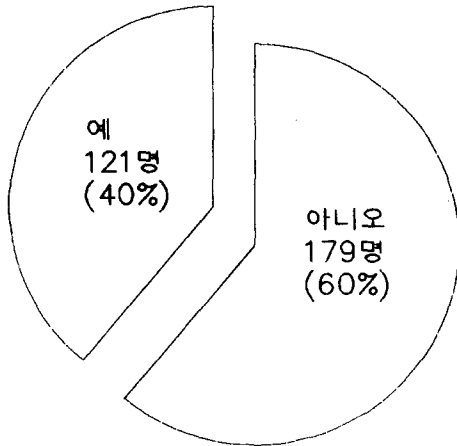


그림 1. 흉부외과 라는 진료과목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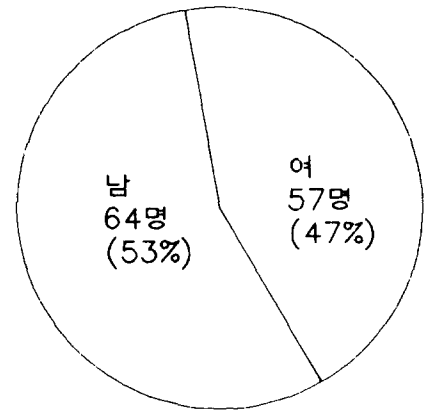


그림 2. 흉부외과 라는 진료과목을 알고 있는 121명의 남녀비율

적인 사고를 제시한다.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은 서울시내 거주하고 있는 20代 1995年 1月 부터 5月까지 약 5개월간에 걸친 “흉부외과”에 대한 조사원의 설문지(표 1)에 의한 지면을 통한 면담 형식으로 조사방법을 진행하였고 단순빈도에 의한 백분율로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흉부외과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었고 여러가지 시술에 따른 의사로써의 환자에 대한 상황설명의 고려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이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 조사부 과장 권소연 씨에게도 감사한다.

결 과

조사대상 300명의 성비 및 나이, 학력분포는 표 2와 같다.

1. 흉부외과라는 진료과목은 알고 계십니까?(그림 1, 2)

대체적으로 모른다고 답한 자가 60%로 월등히 높았고 반면 이 문항에 따른 답변으로 ‘예’라고 대답한 대졸자는 총 89명으로 고졸자 32명보다 훨씬 많다. 대졸 응답자中 48%가 흉부외과라는 진료과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고졸인(28%)에 비해 인식도가 높았고, 男女 성별에서 男이 女보다 조금은 더 분명하게 답해 주었다.

표 2. 성비, 연령 및 학력분포

성비 분포율	(%)
男	144명 (48%)
女	156(52%)

나이(세)	분포율 (%)
20~29	162(74%)
30~39	78(26%)
40~49	45(15%)
50~59	15(5%)

학력	분포율 (%)
대졸	188(63%)
고졸	112(37%)

대졸인 남자가 비교적 많이 알고 있었다.

2. 1번 질문에 예. 라고 답한 응답자 121명 중 흉부외과 영역에서 다루는 수술 또는 병명 대표적인 것을 기재해 주십시오 라는 물음결과-(그림 3).

- (I) 흉부외과를 알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응답자중 상당수(51%)가 모르고 있었다.
- (II) 그리고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의 영향일 것이라 생각되는 가장 잘 알려진 병명으로 심장병, 심장이식을 답해 주었다.

표 1. 설문내용

흉부외과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設問조사

우선 貴下가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서울 백병원에 있는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우리 나라 성인이 흉부외과라는 특수 진료 과목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무슨 진료 및 수술, 질병을 다루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인식도 통계를 내고자 이 설문을 의뢰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종합병원 외과계열에 흉부외과라는 특수 진료 과목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알고 계시면 흉부외과 영역에서 다루는 수술 또는 병명을 대표적인 것을 하나 기재해 주십시오.()
3. 흉부외과라는 용어는 주로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① 처음 듣는 용어다. ② 방송매체 ③ 신문잡지
 ④ 병원에 연관이 있는 주위 사람 ⑤ 기타.....()
4. 심장병도 수술로 치료 할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5. 우리 나라에서 심장 수술이 가능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6. 심장 수술이 가능하다면 현재 우리나라 심장 수술을 할수있는 병원급은?
 ① 대학병원 ② 일반 종합병원 ③ 개인 의원 ④ 잘 모르겠다.
7. 귀하의 친지 또는 본인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① 우리나라에서 받는다. ② 여건이 되면 의료선진국에 가서 받고 싶다
 ③ 기타.....()
8. 문항 7의 (2)에 답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심장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는?
 ① 의학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 떨어져 있기 때문
 ② 우리 나라에서 아직 심장수술을 할 수 없기때문에
 ③ 기타.....()
9. 폐(肺) 수술은 어느 외과 영역에서 시술 합니까?
 ① 일반외과 ② 흉부외과 ③ 내과 ④ 잘 모르겠다.
10. 식도(食道) 수술은 어느 외과 영역에서 시술 합니까?
 ① 일반외과 ② 흉부외과 ③ 이비인후과 ④ 잘 모르겠다.
11. 혈관(血管) 수술은 주로 어느 외과 영역에서 시술 합니까?
 ① 일반외과 ② 흉부외과 ③ 정형외과 ④ 잘 모르겠다.
12. 귀하께서 심장이나 폐(肺, 허파) 식도가 나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느 과에 가서서 진찰 받겠습니까?
 ① 내과 ② 흉부외과 ③ 일반외과 ④ 잘 모르겠다.
13. 질병중에 기흉(氣胸)라는 병이 있습니다. 속칭 허파에 바람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과에 가서서 치료 받겠습니까?
 ① 내과 ② 흉부외과 ③ 일반외과 ④ 잘 모르겠다.

貴下의 성별() 나이()
 학력() 직업()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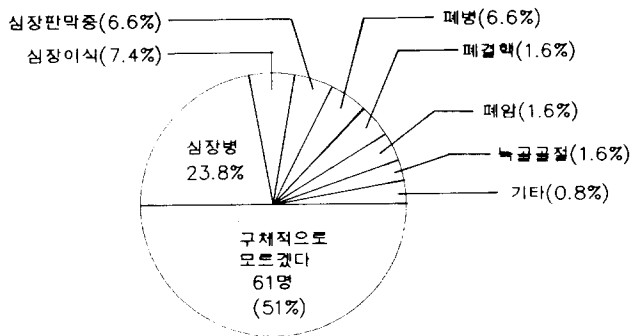


그림 3. 흉부외과를 안다고 답한 121명 중 흉부외과 영역에서 취급하는 수술 또는 병명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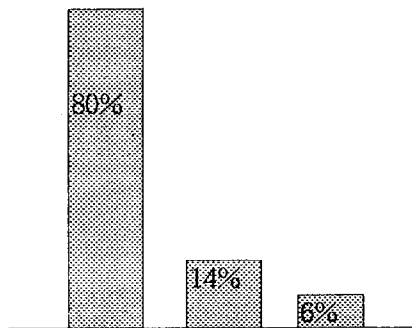


그림 5. 심장병의 수술치료 가능여부의 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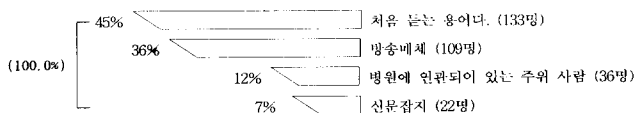


그림 4. 흉부외과 용어는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3. 흉부외과라는 용어는 주로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그림 4)

제일 많은 비율 45%가 생소한 용어라고 답해주었고 36%는 방송매체를 통해 라고 대답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36% 중 21%는 메디컬 드라마 MBC TV '종합병원'을 통해라고 응해 주셨다.

4. 심장병도 수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그림 5)

80% 비율의 많은 사람이 예라고 대답해 주었는데 이는 방송매체를 통한 여러가지 대중매체의 상기와 도시집중율이 높은 한 지역을 통해 조사되었다는 결과에 비하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5. 우리나라에서 심장수술이 가능합니까?(그림 6)

대체로 질문 4와 비슷한 분포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심장수술이 가능함을 알고있으며 아니오라고 대답한 20명중 대졸자가 14명이나 있음은 예상밖의 반응이었다.

6. 심장수술이 가능하다면 현재 우리나라 심장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 급은?(그림 7)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분야여서 인지 국내 의료 현실에 비추어 고인력의 의료진과 전문성이 높은 진료를 위하여 대학병원쪽을 택해주신 분이 상당비율인(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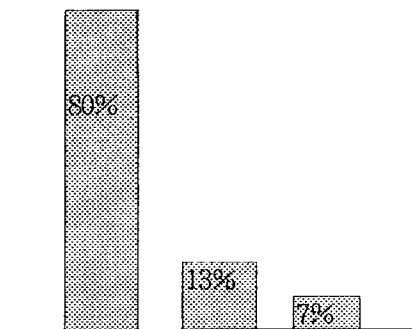


그림 6. 우리나라에서의 심장수술의 가능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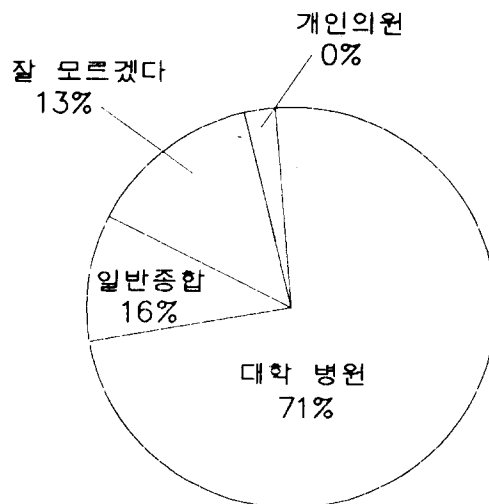


그림 7. 심장수술이 가능한 병원급에 대한 응답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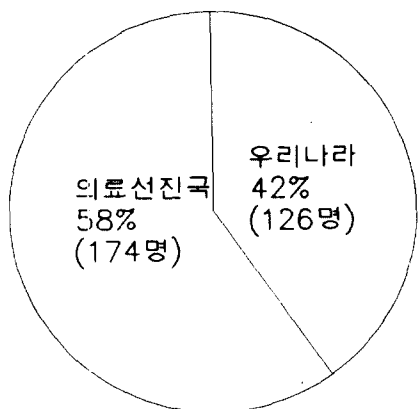


그림 8. 심장수술 받고싶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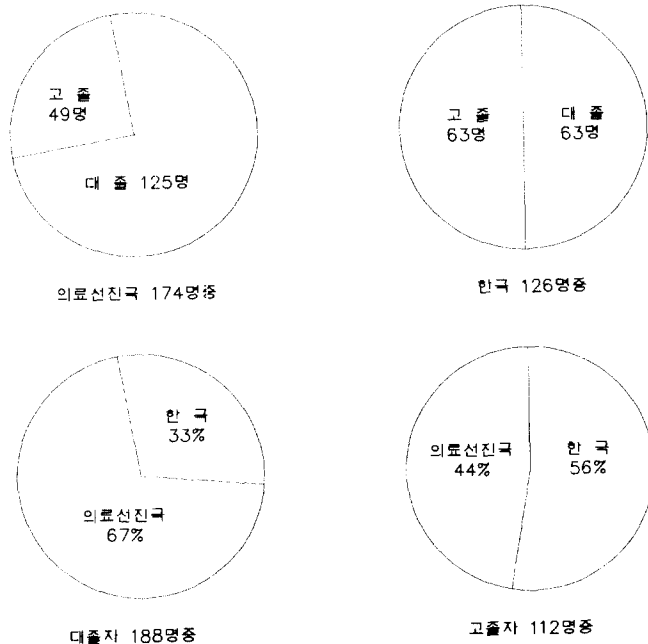


그림 9. "본인이 심장수술을 받는다면 어느나라에서"의 문항
답변자의 답변 및 답변자의 학력분석

212명이었고 일반종합병원에 답해주신(49명) 다소의 의견도 있었다.

우리 나라 의료구조상 대학병원과 준종합병원의 차이는 현저하지만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준종합병원의 흉부외과 개설 증가 추세로 볼 때 이는 집중률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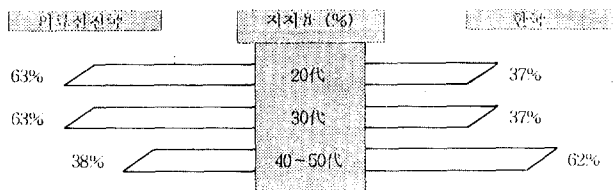


그림 10. 응답자중 심장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나라에 대한 연령 분포

7. 본인이 심장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어느 나라에서?(그림 8, 9, 10)

우리 나라보다는 의료기술과 여건이 발달한 의료선진국을 택한 쪽이(174명)으로 58%를 차지하였고 우리 나라는 126명으로 42%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른 학력 분석도표 결과는(그림 9) 대졸의 빈도가 높았으며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심장수술을 의료선진국에서 받고 싶다고 답해 주었다. 이는 국내 흉부외과 의료진이 선진외과국과 비교하여 결코 뒤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20대 162명중 의료·선진국이 102명, 한국이 60명으로 의료·선진국쪽의 분포도가 높았으며 30대 78명중 의료·선진국이 49명 한국이 29명으로 20대와 비슷한 빈도를 보였으나 40~50대의 연령층에서는 우리 나라 쪽을 희망하는율이 60명중 37명으로 더 높았다(그림 10). 이를 미루어 젊은이들의 외국에 대한 의료인식 선호도를 알 수 있었고 고연령층일수록 우리 나라 쪽을 답해 주었다. 이는 세계화 추세에 있어서 더 넓은 것을 직접·간접적으로 겪어본 세대 층에 합류해서 발달된 문명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의료추세를 느낄 수 있었다.

8. 심장수술을 한국에서 받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그림 11, 12)

대부분의 응답자가 의료선진국에서 심장수술을 받는다는 답변이었고 아직도 한국의 의료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또한 의학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있다는 응답자중(151명) 많은 비율의 상당수가 대졸자였다.

전체 대졸자중 55%, 전체 고졸자중 42%가 우리 의료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져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 우리나라 의학수준이 뒤떨어져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그림 12). 이와 같은 분석으로 고학력과 젊은층일수록 의료선진국을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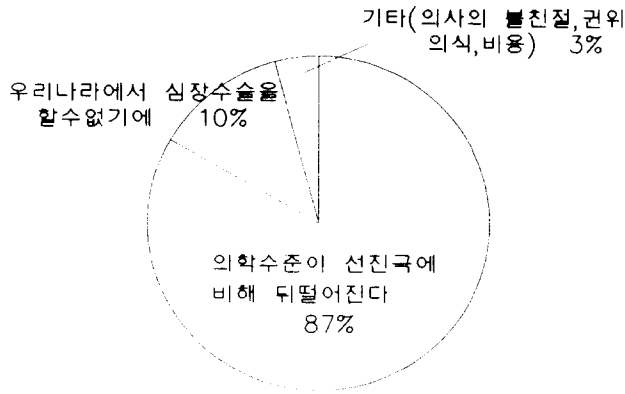


그림 11. 의료선진국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싶어하는 응답자 174명의 의료선진국 선택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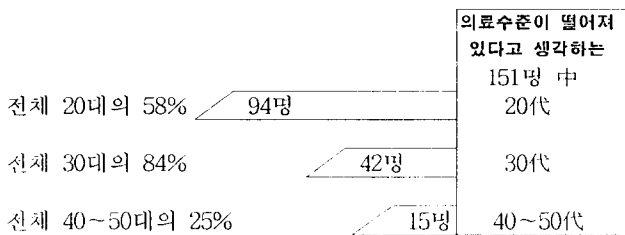


그림 12.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연령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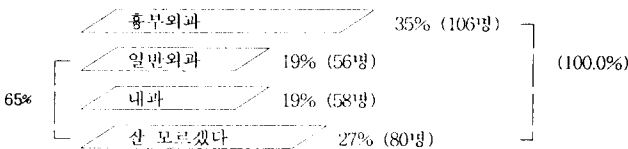


그림 13. 폐 수술을 집도하는 진료과에 대한 인지도

9. 폐수술의 영역은 어느 외과입니까?(그림 13)

전체비율中 65%가 다른과를 지적하였고, 답하였고 300명中 약 1/3 비율의 사람들이 흉부외과라고 답해 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의외로 내과로 답한자가 19%로 많았다는 점이다.

10. 식도 수술은 어느 외과 영역인가?(그림 14)

식도라는 자체만의 해석에서인지 이비인후과에 답해주는 분포가 가장 많았고, 외과의 소속 진료분야를 많이 알려진 쪽으로의 판단 빈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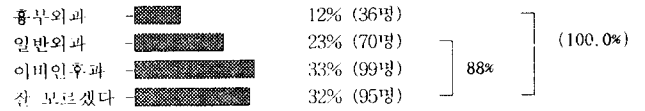


그림 14. 식도수술을 집도하는 진료과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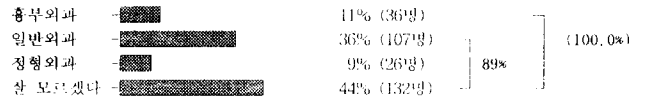


그림 15. 혈관수술을 집도하는 진료과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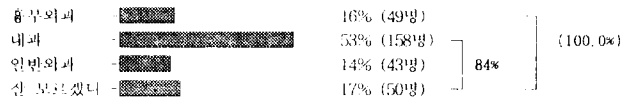


그림 16. 일차적인 진료과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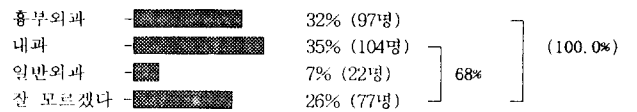


그림 17. 기흉을 치료하는 소속과에 대한 인지도

11. 혈관 수술은 어느 외과 영역인가?(그림 15)

역시 극소수의 응답자(11%)만 흉부외과라고 답하였다.

12. 귀하께서 심장, 폐, 식도가 나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느과에 가서서 진찰을 받겠습니까?(그림 16)

대부분의 응답자가 내과 가서 진찰받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현 의료제도와 외래환자 왕래하는 현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13. 기흉을 치료하는 소속된 과는?(그림 17)

대부분 사람들이 기흉에 대해서 잘 모르나 설문지에 기흉 「흉」자와 흉부외과 「흉」자와 일치되어서 흉부외과라고 답한자가 비교적 많았다고 추측된다.

고찰

최근 소득이 많아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가장 관

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마도 “건강”일 것이다.

원래 외과(Surgery)라는 학문은 현대에 들어와 각 영역이 전문화되어 나뉘어지게 되는데, 심혈관과 폐를 포함한 흉부를 다루는 외과는 흉부외과로 분리되고 예전에 비해 환자 수가 상당히 늘어난 편이며, 저자가 속한(CS)과가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인들의 설문 조사 결과 질병과 치료되어지는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와의 빈약한 사고 관계로 인한 흉부외과에 대한 무지를 분석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구 문물의 개방 수입화로 기존의 전통 의학을 일시에 대체해 버린 서양의학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으나, 현대의 질병들을 주 예로 삼았던 예제 결과 너무도 빈약한 분포율을 보였으며 의료선진국에서 진료(심장 수술)를 원했던 응답자의 상담 분포 결과 아직 완전히 자리매김하지 못한 우리 의료 영역을 알 수 있었고, 우호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의료 편견 등은 소신있는 진료를 꿈꾸기에 많이 부족함이 따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우리만의 전문적인 기술분야를 향한 새로운 도전으로 많은 홍보화와 새로운 의학적 시도와 교육에 참여함은 특히 확보할 부분이라 생각한다¹⁻²⁾.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는 선험(先驗)적 판단 하에 환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할 고지과정 등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의학이라는 전문적인 지식하에 의사가 차지하는 영역은 어느정도 갖추어 있는지에 대한 정확

한 판단이 우리 의사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일반인들에게도 보다 나은 양질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 하겠다.

결 론

우리가 존경받는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심장수술수기의 발전도, 수술에 대한 인식도 및 경제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높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위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며, 일반인에게 흉부외과 의사의 전문성, 필요성, 중요성, 선진국에 비해 뒤 떨어지지 않는 의료의 질 등을 인식시키기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흉부외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여러 가지로 알려지지 않은 기술분야에 따른 방안과 흉부외과 전문의 스스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의학분야를 위해 많은 홍보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선 경, 김형묵. 대한민국 흉부외과 전문의 활동현황. 대흉외지 1993;26:4-11
2. 선 경, 광영태, 김형묵. 흉부외과 진료통계(1)-1991년. 대흉외지 1992;25:1983-90

=국문초록=

흔히 일반인들은 종합병원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도가 개인병원이나 규모가 좀 작은 준종합병원에 비해 높은 편이나 그 자체 내에 포함되어 진료하고 있는 소속분야에 대한 상식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본인이 속해있는 “흉부외과”라는 특수 진료과목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의 인식도와 진료과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와 진료 및 수술, 어떠한 질병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도표로 정리하여 분석해 보았다.

흉부외과에 대한 물음에 따른 상황을 균형 점검하여 현시점에서 “흉부외과”라는 의료진들의 현실영역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비례하여 점검하고자 이들의 현실적인 사고를 제시한다.